성도지 마하보디대탑서 '환희'의 고불식 봉행


분황사 낙성을 하루 앞둔 5월 20일 마하보디 사원에서 고불식을 봉행하는 모습.

조계종 대표단 백만원력 인도순례 현장

5월 21일 분황사 준공 위해
5월 17~24일 6박 8일 일정
백만원력결집불사 동참자에
분황사 건립 불사 후 첫 선
부처님 성지 찾아 약식 법회

인도=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가 산문을 열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21일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식을 위해 5월 17일부터 24일 일정으로 대표단을 꾸려 인도로 향했다. 이번 순례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중단됐던 해외성지 순례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인 동시에, 제36대 총무원의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첫 성과로 분황사 건립불사 현장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인도 순례의 메인법석은 분황사 대웅보전 봉불식과 낙성식이 예정된 5월 20~21일 이틀간 집중됐다. 조계종은 5월 20일 오전 8시(현지시간) 준공을 앞둔 분황사 대웅보전에서 부처님 복장·점안의식 및 봉불식을 거행했다. 백만원력결집불사 동참 대중들이 분황사 불사현장을 방문해 직접 참배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분황사 건립불사는 지난 2019년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시작돼 사부대중의 원력을 토대로 2020년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토식과 착공식 등 일련의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 불자들의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이날 대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분황사 대웅보전에는 가장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로 안치됐다. 분황사 대웅보전에 안치된 주불은 석가모니불, 협시불은 선(禪)과 교(敎)를 대표하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좌상으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는 입상으로 조성됐다. 수인은 부다가야 지역 불상의 주류형식인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따랐다. 주재료는 청동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불상 조성 시 목재를 선호하지만, 인도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했다. 인도는 건기때 최고기온이 58℃에 육박하며 우기에는 습도가 높아, 목재는 보존상 적합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처님 복장에는 불상조성문과 건립불사에 원력을 보탠 시주동참자 및 종단 소임자 명단, 〈화엄경〉, 한문과 한글 〈금강경〉, 무구정광다라니와 불자들이 직접 사경한 사경문 등이 봉안돼 의미를 더했다.

불복장·점안의식은 조계사 부주지 원명 스님과 국장 정수·정묵 스님이 맡았다. 타종과 의식에 대한 설명, 신묘장구대다라니·진언 독송 등으로 진행된 의식은 사부대중의 원력을 사경집에 담아 봉안하는 과정 등으로 눈길을 끌었다. 점안의식에서는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이 불상 조성기를, 종회의장 정문 스님이 법회연유문을, 교구본사를 대표해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이 화현출현문을 낭독했다.

이날 오후 5시(현지시간) 마하보디 사원 내 대탑에서 봉행한 고불식은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원력을 이어가는 법석으로 마련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고불식은 부처님 성도지에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건립한 분황사 건립불사의 원만 회향을 발원하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사부대중은 마하보디대탑 앞 기도처에서 육법공양과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고불문 등으로 분황사 창건의 의미를 기렸다. 특히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보리수 나무 아래서 〈금강경〉을 독송해 눈길을 끌었다.

원행 스님은 고불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다가야는 사바의 성지가 되어, 수많은 구도자들이 위법망구로서 그 숭고한 순례역사의 말석에 조계종 종도들이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제 분황사는 순례자를 위한 안식처이자 수행자를 위한 아란야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이날 고불식에 이어 마하보디대탑을 탑돌이하며 분황사를 중심으로 한 불사의 원만 회향을 발원하기도 했다.

이번 인도순례는 깨달음 성지 부다가야에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사찰이 문을 여는 의미를 기리는 일정인 만큼, 대표단은 부처님 첫 설법지인 바라나시 녹야원을 시작으로, 성도지인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원 등을 잇따라 순례하며 환희의 순간을 함께했다.

대표단은 5월 18일 뉴델리에서 바라나시로 이동해 첫 공식일정으로 사르나트 녹야원과 박물관을 순례했다. 녹야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다섯비구에게 법을 전한 초전법륜지다.

이날 40~50℃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다메크탑 앞에 정렬한 대표단은 약식기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가 봉행된 다메크탑은 부처님 입멸 후 200년이 지난 아쇼카왕 당시, 부처의 가르침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첫 설법을 내린 장소에 건립됐다. 이후 역사의 풍파 속에 훼손되고 방치됐지만 1835년부터 1930년대까지 발굴과 정비작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조성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공식대표단을 구성해 인도 사르나트의 초전법륜지를 순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이곳에서 240km 떨어진 곳에 부처님의 성도지인 부다가야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곳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걸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와 사슴이 뛰어노니는 가운데 첫 설법을 내리셨으니 이 다메크탑이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상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식법회에 이어 다메크대탑을 중심으로 합장한 채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탑돌이를 이어갔다. 불자들은 성지에 머무는 동안 무더위를 잠시 잊은 채 눈을 감고 기도 삼매에 들었고, 일부 불자들은 환희와 감동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다음날에는 부다가야로 이동해 마하보디사원을 참배했다. 마하보디대탑 내부 감실로 이동한 대표단은 헌화 후 약식으로 예경을 올린 데 이어, 부처님이 6년간 고행 끝에 정각을 이루신 보리수 아래로 이동해 전통방식 칠청례로 저녁예불을 올리기도 했다.


부처님 성도지 마하보디 사원 보리수나무 아래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조계종 대표단.


부처님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산문을 연 분황사 부처님.


조계종 대표단이 바라나시 다메크대탑에서 탑돌이하는 모습.

현장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백만원력 결집불사로 보시문화 확산"

분황사 대웅보전 낙성식 직후
기자간담회서 의미·소회 밝혀
"한국불교의 근간은 보살정신"
"열걸음 중 한걸음"의 자평도



"대승불교인 한국불교의 근간은 보살정신에 있고, 육바라밀의 첫 번째도 보시바라밀입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시하고 봉사하는 실천이 바로 보살행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불자들이 보시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곧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남을 위한 보시와 봉사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해보자는 취지였지요. 열 걸음을 위한 한걸음 정도는 디뎠다고 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 낙성식 후, 기자들과 만나 백만원력결집불사에 대한 소회를 풀어냈다. 분황사 건립불사는 원행 스님이 제36대 총무원장에 취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첫 결실이다.

스님은 2019년 4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10대 불사를 기반으로,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선포했다, 불자 한 사람이 매일 100원을 보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불자가 백만 명에 이른다면 한국불교 중흥의 역사를 새롭게 새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였다.

특히 분황사 건립불사를 비롯해, 승려와 불자들의 의료·노후복지를 위한 불교요양병원, 신도시 포교를 위한 세종시 광제사와 위례 상월선원, 사찰 성보의 연구 보수를 책임질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홍제사, 10.27 법난기념관 등 10대 불사를 선포했다.

취지에 공감한 불자들의 동참이 잇따랐고 불과 4년간 120억 원이 모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원행 스님은 "모연금 액수보다 중요한 것이 백만원력결집불사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라며 "보시문화 확산을 통해 보살정신을 되살리고 한국불교 중흥을 일궈낸다는 근본 취지를 볼 때, 이제 열걸음을 위한 한걸음 정도는 디뎠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고불문을 낭독하는 원행 스님.

특히 스님은 "불자 한사람이 하루 100원을 보시하면 한달에 3000원이 되고 이를 백만 명이 행하면 연간 360억 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100원을 보시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매일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만원력결집불사는 한국불자들이 보시를 습관화해 남을 위하는 삶을 사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다"며 이어 "남은 임기 동안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위해 좀 더 진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웅보전을 낙성한 분황사의 앞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스님은 "분황사가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열반경〉에 성지순례한 공덕으로 삼악도를 면한다고 했다. 분황사 건립을 계기로 더 많은 한국불자들이 부처님 발자취를 되짚고 분황사도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도 부다가야=송지희 기자